

민주 경선 복구율·여수갑 '태풍의 눈'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6곳 공천 확정·10곳 경선 여수갑 재심 인용 여부·복구를 재경선 실시에 관심 집중

민주당이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6곳에 대해 공천자를 확정하고 10곳에 대해 경선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1일 현재 광주·전남에선 광주 서구 갑의 단수 후보 결정과 순천시의 경선 여부만이 남게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수 갑의 재심 인용과 복구율의 재경선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광주 북구갑(조오성)과 동남을(이병훈)의 공천자를 확정했다. 또 광산갑(이석형·이용빈)의 경선은 1일부터 3일까지 실시되며 서구를(고삼석·양향자·이남재)과 광산을(민형배·박시중), 동남갑(윤영덕·최영호) 경선은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논란으로 경선 결과 발표가 연기된 복구율(이형석·전진숙)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민주당 최고위는 2일 회의를 열고 공천위가 요청한 징계 및 재경선 등에 대해 판단한다. 당내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논란을 자초한 이형석 예비 후보에 대한 검점과 함께 재경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이번 논란 자체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재경선은 최소 5일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다른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예비후보에 검점을 부과하고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경선 자체가 광주 총선 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쟁 상대인 민생당 측에서는 복구율의 재경선 논란이 커지고 장기화될수록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서구 갑은 현역인 송갑석 의원의 단수 공천이 확실한 상황이다. 광주 지역구 경선이 마무리되는 오는 5일 쯤 단수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은 10개 선거구 가운데 목포시(김원익), 여수(김희재), 담양·함평·영광·장성(이재호), 해남·완도·진도(윤재갑)의 공천자를 확정했다. 또 1일부터 3일까지 나주·화순(김병원·손금주·신정훈), 무안·신안·영암(서삼석·백재욱), 고흥·보성·장흥·강진(김승남·한명진)의 경선이 진행된다. 광양·곡성·구례(권항엽·서동용)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경선이 실시된다.

여수갑(강화수·김우화)은 경선에서 탈락한 주철현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아직 경선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 재심위가 주철현 예비 후보의 재심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당 내에서 지역위원장을 지내고 후

보 검증위를 통과한 예비 후보를 공천위가 명확한 사유없이 경선에서 배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계호 호남 선대본부장과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이계호 대표를 만나 "경쟁력이 가장 높은 예비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점에서 재심 인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수시장을 지낸 주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설 경우, 등부권의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등부권은 지난 지방선거 등에서 무소속 단체장들이 속출한 지역이 때문이다. 한편, 순천은 국회의 선거구 확정에 따라 분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오는 5일 이후에나 경선이 결정될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150곳 후보 윤곽...靑 출신 약진

윤영찬·한병도 등 대거 본선행...김우영·김봉준·강정구 고배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253개 지역구 중 60% 가량 공천을 마쳤다.

1일 기준으로 민주당은 단수공천, 전략공천, 경선을 통해 253곳 중 150곳(59.3%) 지역구 후보의 윤곽을 잡았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 과정 등을 통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윤곽이 드러난 150명 후보 중 단수공천은 84명이다. 현역 의원이 36명, 원외 인사가 48명이다. 경선 승리로 총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후보는 53명으로, 현역 의원이 15명 그리고 원외 인사가 38명이다. 전략공천이 확정된 후보는 13명이다.

초반 공천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총선에 대거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의 희비가 엇갈린 점이 눈에 띈다. 서울 은평을 경선에서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은 현역인 강병원 의원에 겨 고배를 마셨다. 김봉준 전 인사서비스관도 경기 남양주를 경선에서 현역인 김한정 의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강정구 전 선임행정관은 서울 도봉을 경선에 도전했으나 오기형 당 일본경제협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졌다.

반면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에서,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은 서울 관악에서 각각 경선 승전고를 울렸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전북 익산을 경선에서 이겨 본선에 진출한다.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은 서울 성북갑에서 현역 유승희 의원을 꺾고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허소 전 행정관(대구 달서구), 남영희 전 행정관(인천 미추홀구), 김승연 전 행정관(경기 수원갑), 박남현 전 행정관(경남 창원 마산합포) 등 행정관 출신들도 대거 경선에서 이겨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구),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구),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 공주·부여·영양),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충남 보령·서천),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충남 아산갑),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오중기 전 행정관(경북 포항 북구), 이원택 전 행정관(전북 김제·부안) 등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고민정 전 대변인은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낙점돼 서울 광진구에 전략공천됐다. /연합뉴스

미래한국당 대항마 '선거연합 정당' 뜨나

시민단체, 민주당에 제안서...이해찬 대표, 본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진보 진영 비례대표 후보를 모은 '선거연합 정당' 창당 시나리오에 비준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논의가 주로 핵심 인사들의 '비공식 테이블'에서 이뤄졌다면, 이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관련 논의를 본격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의 제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진보·개혁세력을 이 힘을 합쳐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여기에 '파견' 하자는 것이다. 미래통합

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만 목표를 둔 '꼭두각시' 정당이라면, 진보·개혁 진영의 연합정당은 공동의 정책방향과 가치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우선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이미 경선 절차를 밟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설득도 그중 하나다.

한편, 선관위의 4·15 총선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는 26~27일인 점을 고려하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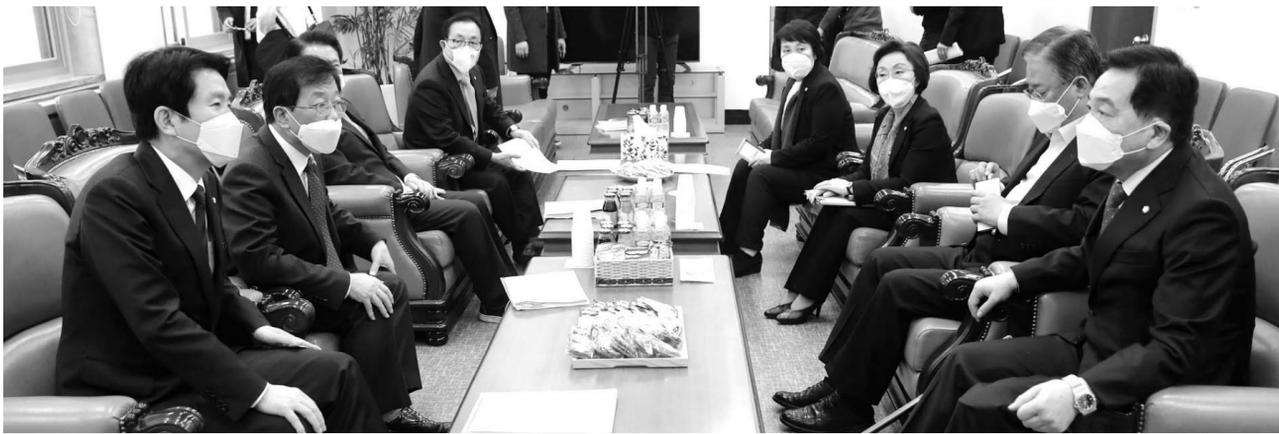
안철수 "비례대표만 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15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의 결정이 이번 총선에서 전체 야권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동안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이나 선거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일관되게 "통합도 연대도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통합당과의 연대를 우회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기로 한 대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4·15 총선의 선거구 확정과 코로나19 추경 등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구획정 오늘 마무리...추경, 회기내 처리

국회 3당 원내대표·수석 회동...“민생법안 가능한 많이 처리”

여야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유호덕·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

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회동에 이어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 민생관련 법안을 가능한 많이 협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하는 대로 심도있게 진행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금주 추경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당시 집행된 6조2000억 원 추경 규모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 규모를 논의할 예정으로, 1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1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분구 대상으로는 세종, 통폐합은 경기 군포갑·을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조정 규모와 대상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인구' (2019년 1월을 기준, 하한 13만6565명)를 적용하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 상한을 넘기는 것이 15곳이다.

인구 하한을 최대 14만5000명까지 상향 조정해 시물레이션해보면 미달·초과 선거구가 각각 9곳·7곳 정도로밖에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번 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읍·면·동 구획 미세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공식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의 경우 2일 선거구획정위의 시물레이션 결과를 다시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터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안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윤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통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양 222-9054 ·충 정 222-8171

남구 ·남 부 675-5530 ·백 은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윤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5-451 ·광 산 944-0444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3. (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과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점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점(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직원 채용 모집공고

당사는 전국 지역 영업망 구축과 설계·영업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영업직	○명	합성목재 영업
설계직	○명	합성목재 데크 및 울타리 설계

전국 지사 및 지사장 협력업체 모집 안내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제품(합성목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전문제조회사로 전국의 지역별 총판(관급 영업 및 협력시공업체)을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 전국 시·군구
☑자격 및 우대사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공서 납품경력자, 시공경력업체 등
☑주요 아이템 : 합성목재 데크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도로시설물, 데크로드시스템, 확장형인도교
☑문의 및 접수 : (주)애니우드·(주)이노스 마케팅팀
☎ 033)746-8953 / anywood1201@naver.com

www.any-wood.com

조달우수제품/ 특허/ 성능인증/ 녹색기술/ 환경표지/ KS인증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 봄.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2월 28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 강 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